



코헴

99
봄
제31호

KOREA HEMOPHILIA FOUNDATION

• 등록번호/사바 167호 • 등록일자/1991. 9. 17 • 발행인/이순용 • 발행일/1999. 3. 31 • 편집인/김은주



사회복지
법인 한국혈우재단

'99년도 정기 이사회 개최



'99년도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 정기 이사회가 지난 3월 25일 서울 신라호텔 에뜨와르룸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선임, '98년도 사업 및 예산 실적 보고, '99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 보고, 그동안 주요일지 및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감사 선임은 강명훈 변호사께서 유임되었습니다.

특히 혈우재단의 일련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재단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재단 및 한국코헬회가 꾸준히 노력해 왔음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혈우병 환자의 복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혈우재단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차 례

1. 초대석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 이성우
2. 혈우병 상식/혈우 보인자에 대하여 II	
6. 기행탐방/강원도 봉평을 찾아서	취재 김승택
8. 가정탐방	취재 김승택
9. 문예	수필/시
12. 알립니다	

1999년 봄호

- 등록번호 / 서바 167호
- 등록일자 / 1991. 9. 17
- 발행일 / 1999. 3. 31
- 발행인 / 이 순 용
- 편집인 / 김 은 주
- 인쇄인 / 덕수인쇄 김재호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

130-070

서울·동대문구 용두동 234-1

포은빌딩 3층

TEL : 928-4581~2 FAX : 928-8440

크로바 서비스 : 080-021-7575

노인 복지 사회를 맞이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
이 성 우

우 리나라 노인인구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 1990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인구 대비 2.9%에 불과하였는데 1970년에는 3.1%, 1980년에는 3.8%, 1990년에는 5.1%, 그리고 1999년에는 7.0%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6년 후인 2006년에는 8.0%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인인구의 수적인 증가,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노부모 부양의식의 감퇴 등으로 앞으로 이들 모두를 누가 보살펴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령후기 노인들의 경우는 건강한 상태에서 장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병장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병이 사인의 상위를 점하고 있고 당뇨병 등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은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이 예측된다. 또한 근년에는 신경증이나 우울증, 심신증, 수면장애 등 여러 가지 '마음의 불건강', '마음의 병'이 늘어가는 상황이 눈에 띄고, 그 배경으로 고도화하고 복잡화된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증대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여러가지 '마음의 불건강'이나 '마음의 병'의 원인이 되고 있어, 스트레스

에의 대응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질병의 발증이나 진행에는 현대인의 생활 형태가 깊게 관련이 있으며, 편식, 운동부족, 흡연, 과로 등 현대인에서 흔히 있는 건강에 해로운 생활습관이나, 고도로 발전된 문명사회의 도래가 이러한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 증진이나 질병 예방의 관점에서 현대인의 일상생활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생활환경의 개선과 의학의 진보의 성과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 고령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길어진 노후 생활을, 삶의 보람을 가지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가 삶의 보람을 가지고 자립하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고령기가 되면 삶의 보람을 잃고, 사회참가나 생애학습의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집에 폭박혀 살게되고, 외상환자나 치매환자가 된 때에는 이들을 누가 돌보아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고령자가 스스로 원하는 환경에서 자립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시키는 큰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장수사회라고 말하는 가

운데, '너무 오래 살았다'라던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 버리고 싶다'라던가 하는 말이 고령자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성질환의 증대는 쾌적하고 편리함을 추구하여온 현대사회에 있어서 현대인의 생활습관 자체가 질병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생활을 다시 돌아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건강하고 삶의 보람을 가지는 활동적인 노후생활이 유지될 수 있고, 또한 장애가 있어도 고령자 자신이 원하는 환경에서 자립하여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생활습관병에 대하여서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이나 질병 예방과 같은 1차 예방이 중요하게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일상생활이 어떠하여야 하는 가를 염두에 두고, 직장의 취업 관행을 포함한 생활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며,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이 확립되도록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 이 내용은 호주혈우재단이 발간한 소책자인 'On being a carrier' 를 번역한 것입니다.

혈우 보인자에 대하여(Ⅱ)

혈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정보 책자

“혈우병이 내 인생의 한 부분인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날 보인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런 칭호보다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있으니까요. 나는 먼저 인간이고, 여자이고, 연인이고, 엄마이면서, 또 친구이니까요...”

보인자 검사 양성에 대한 두려움

보인자 검사의 양성에 관계된 두려움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아래에 네 개의 일반적인 이런 두려움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고 검토해 보았다.

1. 이전의 경험

당신은 아마도 혈우병이 있는 가족의 일부이며 혈우병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알 수도 있다.

혈우병의 생활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옛날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이것은 응고인자의 사용이 용이해지고 가정요법이 가능해진 덕택이다.

예전에는, 주사를 맞으려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했다. 이러한 일은 그들의 생활에 분열을 가져왔다. 1990년대에 접어들며 집에서의 치료가 가능해져왔다. 집이나, 학교 또는 직장에서 자기가 주사하는 것이다. 혈우 아동의 부모들이 그들이 자기가 혼자 주사할 수 있을 때까지 주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훈련들은 혈우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전 무서워요. 난 내 아이가 혈우병인 것을 원치않아요.”

다른 문제점은 혈액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오염된 혈액제품들이다. 개선된 바이러스 불활성화 처리 제품과 절차들로 인해 지금은 위험이 많이 줄었다. 현재의 혈액제품(약)들은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다. 덧붙여서, 유전자 재조합 공법으로 생산된 인자 농축제가 도입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이러스 전염의 위험을 제거한다.

2. 죄책감

“우리 할머니는 아빠에게 혈우병을 물려준 것에 대해 큰 죄책감을 가지고 사세요.”

사실은 아무에게도 잘못은 없다. 혈우병 보인자 여성들은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유전받았거나 보인자인 어머니로부터 유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많은 보인여성들이 자기가 유전을 퍼뜨렸다는 것 때

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죄책감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고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 반드시 언제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오랫동안 죄책감을 갖다보면 해를 주거나 불화를 가져오며 자기자신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갖게되며 지나친 자기보상을 추구한다.(예, 혈우병인 아이를 교육상 망친다.)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든지 숙달된 상담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3. 문화적인 숙고

“만일 내 남편의 가족들이 내가 보인자란 사실을 알면 어찌지?...”

어떤 여성들은 혈우병에 눈쌀을 찌푸리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집안에 시집을 갈 수도 있다. 이런 집안에서 보인자 검사에 양성으로 판명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집안으로부터의 압박을 잘 다룰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담가의 도움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어떤 집안은 호의적이고 도움을 주려고 한다. 그들은 보인자 여성을 돕고 혈우병 아이를 키우는데 같은 책임을 느낄 것이다.

4. 배우자에게 밝히기

“만일 그이가 날 거절한다면..” 거절당한다는 두려움은 흔히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당신은 당신의 사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야기를 애인에게 밝혀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시간을 끄는 것일 것이다. 혈우센터에 있는 상담가가 이런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딸에게 그녀가 보인자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

사춘기 시절은 많은 이들에게 불안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십대가 되기 전에 말해주는 것이 좋다. 그녀가 어릴 수록 보인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이것이 그녀가 십대가 되었을 때 아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그때는 아이들이 가장 자의식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적이 되는 시기이므로, 강한 반발을 예상하고 호의적이 되어주어야 한다.

관계되는 문제들

당신 가족들의 태도, 특별히 혈우병에 대한 당신의 아버지나 남자형제들의 태도가 보통 딸이 자신이 보인자란 사실이나 혈우병 아이를 낳았을 때 대처하는 역할의 표본이다.

만일 당신 가족 중 하나가 혈우병 때문에 심하게 고생했거나 관계된 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신의 딸은 보인자란 사실에 대해 매우 걱정을 할 것이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저에게 혈우병을 가진 아기는 낳지 말아라 라고 말해오셨어요”

혈우병 보인자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딸이 보인자 양성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에 영향을 준다. 비록 당신이 보인자라는 경험에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딸은 그녀 자신의 느낌을 가져야할 권리가 있다.

혈우병 보인자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제8 또는 제9 응고인자를 반만 가지고 있다. 생리를 처음 시작하기 전 이런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당신의 딸은 그녀 자신이 보인자란 사실을 부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될 지도 모른다. 이것은 그녀가 나중에 커서 혈우병 자식을 낳을 수 있다란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생한다. 아이에게 사실을 직접 직면하게 하는 것 보다는 시기를 잘 보는 것이 좋다. 혈우센터에 있는 상담가에게 조언을 해보라.

“난 내 딸이 내가 보인자란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알게 하진 않을겁니다. 난 혈우 아이를 낳고서 알았거든요. 제인은 7살 때, 그러니까 몇 년전 테스트를 받았었요. 그리고 지금 이때가 그아이의 인생 중에서, 보인자란 것에 대해 신경을 쓸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그녀가 이 사실에 좌절한다면, 우리는 같이 이겨낼겁니다.”

유전학적 상담

“더이상 고개를 모래에 묻고는 돌아다니지 못하겠더군요. 내가 보인자인지 아닌지 알 필요가 있었어요. 그냥 운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혈우병 보인자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큰 여성들은 유전학적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이것은 임신이 가능한 나이가 되기 전에, 행해지는 것이 좋다. 유전학적 상담의 목적은 유전적 위험을 충분히 알려주어서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전학적 상담은 다음의 두 주요 부분으로 되어있다.

첫째는 교육인데, 혈우병 유전자에 대해서 알고, 어떤 검사가 가능하고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다.

둘째는 상담이다. 당신이나 당신의 부모, 그리고 가족들과 이런 문제로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기를 갖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나 당신의 아기에게 혈우 유전자를 전하게 된다는 것과 연루된 죄책감과 관련된 것이다.

상담은 당신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해도 역시 필요하다.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만일 남자 아이를 갖는다면 혈우병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내가 혈우 유전자 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살았구나 했어요. 그렇지만, 저의 언니가 두 명의 혈우병 아이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질문이나 걱정들을 당신의 상담가와 만나기 전에 정리해 본다면 상담 진행 과정이 좀 더 매끄럽고 좀더 유익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상담 과정의 주 포인트를 정리하게끔 하려고 친구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다.

상담가의 할 일은 각자의 필요나 원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것을 도와서 그들 자신의 특별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혈우센터는 유전학적 상담을 제공하거나 이것을 수행하는

병원에 당신을 위탁하기도 한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혈우병 유무 검증

임신 중일 때 수행되어질 수 있는 두가지의 주요 검사가 있다. 이것들은 아이가 혈우병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 그것은 융모막 채취와 양수 천자 방법이다. 융모막 채취는 임신 10-12주 사이에서 수행되고, 양수천자는 임신 14-15주 사이에 이루어진다. 두 개의 검사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의사나 상담가는 임신 중인 아이를 검사해봐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과 어떤 검사가 그들에게 가장 좋은지 결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검사는 어떠한 것입니까?

융모막 채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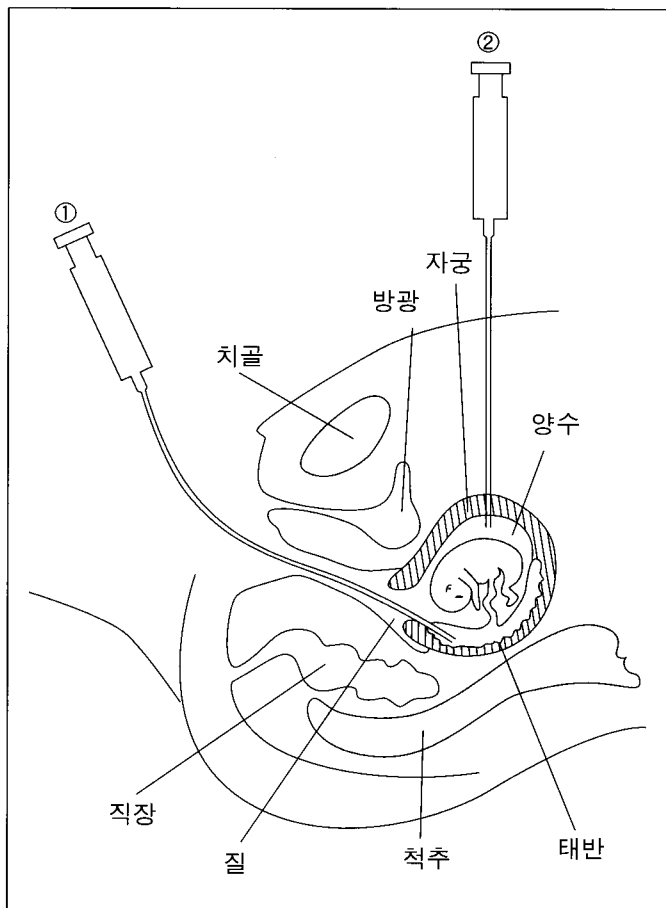
융모막 채취는 태반으로부터 아주 조금의 조직을 떼어내어 검사하는 것이다. 태반은 자궁의 벽에 붙어있으며, 발육하는 태아는 태반에 연결된 탯줄을 통해 붙어있다. 태반은 발육하는 태아의 기반 영양물에 그리고 호르몬 생산에 관계하고 있다..

이 검사에 필요한 조직은 정말 조금이다. 전체 태반조직의 약 천분의 일(1/1000)정도이다. 이 조직을 취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질을 통한 방법과 복부를 통한 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은 초음파 스캔을 필요로 한다. 스캔은 취해질 태반조직의 위치를 정한다. 의사는 눈으로 보면서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된다. 가장 적절한 방법의 선택은 당신과 상의되어질 것이다.

질을 통한 융모막 채취

이는 자궁내에 있는 아이의 위치를 초음파를 통해 보면서 찾는 동안, 스페큘럼(speculum)이 질을 통해 삽입된다.(스페큘럼은 자궁경관을 자세히 보기위해 질입구를 벌리는 기구이다)

그 다음 미세한 튜브가 자궁 내로 자궁 경관을 통해 들어간다. 튜브의 모습이 초음파 영상에 뚜렷히 보이게 되고 태반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다가간다. 작은 조직이 태반에서 떼어진다. 이 과정은 보통 임신 10-12주중에 이루어진다.



용모막 채취(1)와 양수천자(2)

복부를 통한 용모막 채취

이는 양수 천자의 방법과 비슷하게 수행된다. 초음파 영상으로 보면서 복부를 통해 가는 침을 찔러넣어 태반의 조직을 떼어내는 것이다. 국소 마취를 한다. 약 10-20 mg 정도의 조직이 떼어내어 진다. 이것은 임신 10-12주 중에 보통 이루어진다.

만일 의사가 실험실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만한 충분한 조직을 떼어내지 못했을 경우, 한번 이상의 용모막 채취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은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

용모막 채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이 검사는 외래에서 시행된다. 검사 전에 금식할 필요는 없다. 자궁이 초음파 진단에 알맞은 위치로 있기 위해서 방광이 알맞게 부풀어 있으면 좋는데, 검사 한 시간 전에 무탄산 음료

1리터를 마셔야한다. 결과는 약 2-3주 후면 나온다.

용모막 채취는 경험이 많은 의사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검사 후 유산될 확률은 1% 미만이다. 이러한 수치는 용모막 채취와 관련 없이 유산하는 경우도 포함한 것이다. 만일 검사로 인한 유산이라면 검사 후 몇 주 이내에 발생하게 된다.

어떤 여성들은 검사 후에 때때로 심한 복통과 질출혈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증세는 정상이고 단지 하루 정도만 지속된다. 그러나 걱정된다면 의사와 상의해하면 된다.

양수천자(amniocentesis)

이 검사를 위해서, 복부를 통해 가는 바늘을 자궁 속으로 찔러넣는다. 양수는 약 15ml를 뽑아낸다. 통증은 아주 적다. 양수는 발육하는 아이로부터 떨어진 세포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세포들은 검사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실험실에서 배양된다. 양수천자는 임신 14-15주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가 가장 충분한 양수가 있을 때이다. 양수천자는 외래에서 시행되는 검사이다. 결과는 3-4주 걸린다. 숙달된 의사에 의해 검사가 수행된다면, 유산의 위험은 1% 미만이다. 만일 유산이 일어난다면, 검사 후 몇 주 내로 발생한다.

검사 받은 날 심한 복통같은 경험은 드물다. 그러나 소수의 여성들은 출혈과 적은 양의 양수가 새어나오는 경험을 한다. 이럴 경우는 의사와 상담한다.

부모들은 바늘이 아기를 건드리면 어쩌나 걱정을 하지만,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수행되어지기 때문에 바늘은 아기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삽입된다. 그리고 모든 진행은 무균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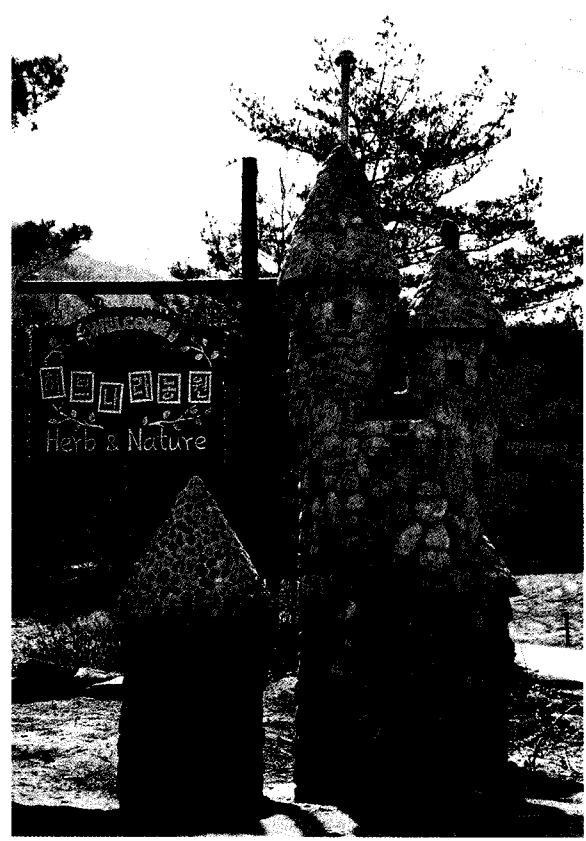
태아 혈액 채취

태아혈액 채취는 일반적인 검사는 아니다. 방법은 양수진단과 거의 흡사하다. 태아의 혈액 내에 제8 또는 제9 응고인자의 존재 여부를 검사함으로써 태아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이 검사를 수행한 후 유산될 위험은 5% 정도 된다.

허브 이야기

- 허브나라 농원 -

여 러분은 혹시 '허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허브'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향기로운 자생 식물들을 총칭하는 말이다(향초, 약초, 향미채소, 향신료 등). 산에서 숲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편안한 마음이 되고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본래 모습이 '자연'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유용 식물인 허브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생활에 여유와 향기를 주어왔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아직 몰랐던 허브에 대해 탐구해 보기로 하며 또 강원도 봉평에 자리한 허브나라 농원과 근처의 가 볼만한 곳도 같이 소개해 보기로 한다.



▲ 허브나라 입구: 돌로 만들어진 성채가 이채롭다.

허브에 대해

일반적으로 허브라고 하면 외국 들꽃이라고만 생각한다. 마치 지금껏 우리에게 없었던 그 무엇이 새롭게 선보이기라도 한 듯 말이다. 그러나 허브는 그 시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땅에서도 자라고 있었다.

옛 어머니들은 백합, 박하 등 향기로운 들꽃을 뒷마당 장독대 주변에 심어

귀귀한 냄새가 나는 것을 막았다니 허브가 얼마나 일상적인 식물이었는지 알 수 있다.

우리 생활에 유익하게 이용되는 허브는 꿀풀과, 지치과, 국화과, 미나리과, 백합과 등 약 2,500여종 이상이 있으며 관상, 약용, 미용, 요리, 음료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심지어 요즘은 '향기 마케팅'이라고 해서 마케팅의 한 분

야인 판매 촉진전략에 관한 연구로서 향수, 향기, 방향제를 이용하여 관련제품에 대한 구매욕을 자극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허브농장

'메밀꽃 필무렵'의 고향 봉평 홍정계곡에 자리한 '허브나라 농원'은 아름다운 자연과 허브향이 어우러진 우리나라 최초의 허브농장이다. 이 허브나라 농원에서는 이곳에서 직접 청정 재배된 허브로 만들어진 차와 요리, 포푸리와 공예품들로 홍정계곡을 찾은 많은 이들에게 건강과 맛, 향과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농원입구에 들어서면 '자작나무의 집'으로 불리는 아담한 이층집을 만나게 된다. 이곳은 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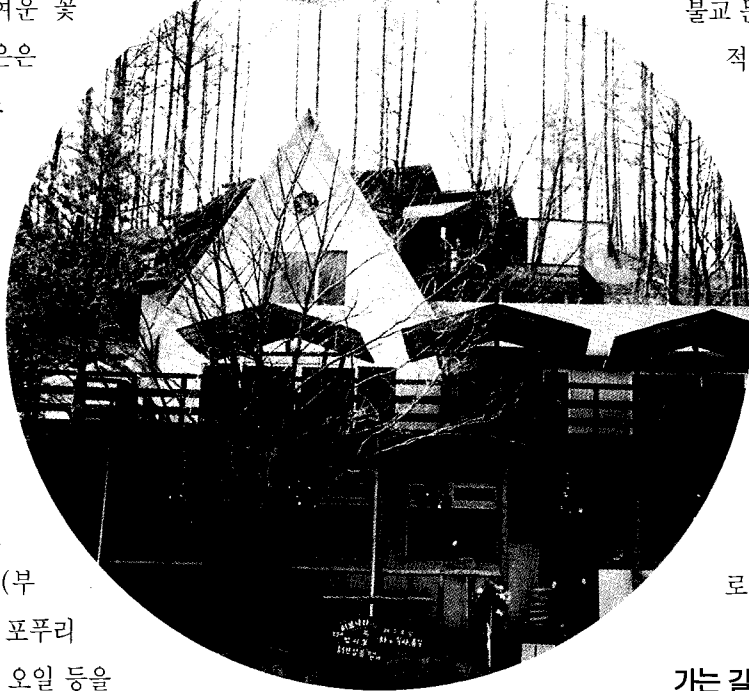
브로 만들어진 각종 차와 향신료 등을 전시하고 파는 쇼룸과 허브를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음식들을 맛 볼 수 있는 식당이 자리잡고 있다. 허브나라만의 요리상품들을 살펴보면 허브우동, 허브튀김, 허브쌈, 허브샐러드, 허브고기볶음등으로서 천연향료와 향긋한 허브채소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탁은 항상 싱그럽다. 식사 후 나오는

허브차는 그 종류만도 10가지가 넘는
다.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보면 고대
왕실에서 달콤하고 강한 향기로
천국의 문을 여는 향초로 불
려지는 '베질'은 머리를 맑
게 하고 두통을 없애며
강장효과도 있다고 한
다. 또 기분을 상쾌하고
청량하게 해주는 '민
트', 이것은 우리가 씹는
껌의 원료로도 많이 쓰인
다. 건강차로 알려진 '베가
못트', 꿀벌이 좋아하는 일명
비밤으로도 불리며 피로 회복과
최면, 방부 효과도 있다. 국화꽃의
축소판처럼 아주 작고 귀여운 꽃
'케모마일'은 사과 향기가 은은
하여 유럽에서는 꽃만으로도
이용된다. 진정, 소화촉진
작용이 있다고 한다.

식당앞 쇼룸에 들어서
면 각종 허브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종류의 차뿐만 아니라 허
브목욕, 허브찜질, 허브
스팀욕 등 건강, 미용에 쓰
여지는 재료들(목욕재, 비누,
향식초등)과 허브선물세트(부
케, 액자, 압화 등), 그리고 포푸리
(장미, 라벤더 등의 꽃 허브, 오일 등을
혼합하여 밀폐, 숙성, 건조시킨 자연의
향기), 허브 원예를 위한 서적, 묘목 등
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자작 나무집 뒷편으로는 산장이 자리
하고 있다. 이곳은 민박도 가능하기 때
문에 주말이면 멀리서도 가족들이나 연
인들이 몰려와 바베큐 파티도 하면서
자연을 벗삼아 쉬고 간다.

향기 속에서 여유를 찾고 내일의 삶



▲ 허브로 만들어진 각종차와 관련제품들
을 전시·판매한다.

▲▲ 자작나무집: 자작나무로 지어진 이
국적인 식당으로 허브를 이용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을 즐겁게 하는 허브는 생활의 조미료
라 말할 수 있다. 이제 가끔은 허브를
통해 물질문명의 찌꺼기를 털고 자연으
로 돌아가 보면 어떨는지...

주위에 가 볼만한 곳

해발 1,277미터의 홍정산에 뿌리
를 두고 흐르는 홍정계곡은 한강
의 발원지로서 옥처럼 차고
물이 맑아 열목어, 송어, 두
가리 등 산천어가 살고 있
다. 여름에는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두릅나무,
밤나무 등이 어울린 깊은
숲과 잔잔하게 흐르던 물
살이 기암괴석과 만나 급
류로 변하며 깊은 연못을 이
룬 '구유소'에 피서객들이 즐
거 찾는다고 한다. 인근의 국립공
원 오대산과 현승을 배출하고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오대산의 대표
적인 사찰인 월정사, 국보 제 478
호인 팔각 구층 석탑이 유명하
다. 특히 반공 교육의 산 교
육장인 이승복 기념관, 현
대 문학의 대두 가산 이효
석 선생이 태어나고 '메
밀꽃 필무렵'의 실제 무
대였던 평창 이효석 문화
마을, 또 오대산 전나무 숲
속에 있으며 각종 약 성분이
녹아있는 방아다리 약수와 새
로 발견된 신약수가 있다.

가는 길

경부고속도로 신갈 분기점(중부고속
도로의 경우는 호법 분기점)에서 영동
고속도로 여주~원주~소사를 거쳐 영
동1터널을 통과 후 면은 I.C로 들어와
휘닉스파크를 지나 홍정리 입구로 오면
된다('평창 산채시험장' 이정표가 있
다). 대중교통으로는 서울 동서울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장평 I.C까지 2시간
30분 간격으로 버스가 출발한다.

꿈을 먹고 사는 사람



큰 무가 끝나면 진성학씨(30세)는 서둘러 방이역으로 달려간다. 역시 퇴근해서 돌아오는 아내 윤선경씨(27세)를 만나기 위해서다. 맞벌이를 하는 이들 부부는 저녁에 만나 같이 귀가하는게 요즘 적잖은 재미다. 4년 연애 끝에 98년 5월 30일 웨딩마치를 올렸고 이제 여섯달 후면 아빠, 엄마가 된단다. “아기는 올해쯤 가지려고 했는데 미처 생각지 못하게 일찍 생겼네요...” 겸연쩍게 웃는 성학씨는 내심 아빠가 된다는 설레임에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내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요즘 부쩍 선경씨가 많이 힘들어 하기 때문이다.

“아들보단 전 딸이면 좋겠어요” 성학씨의 말에 선경씨는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부모님은 아들이었으면 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나보다.

이들 부부의 첫 만남은 대학시절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르바이트로 모 전자회사 모니터 요원으로 우연히 같이 일하면서 서로 인연이 닿았다. 처음에는 눈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는데 선경씨의 착하면서 꾸밈없는, 특히 자신을 평등하게 대해주는 마음에 점점 반한 성학씨가 나중에는 선배에게 미팅추신을 부탁해서 당당하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한다.

“진실게임이라고 다들 아실겁니다. 거짓없이 진실을 예, 아니오 만으로 대답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미팅 전에 선배에게 부탁했지요 파트너를 선경이로 하게 해달라고...”

치밀한 준비로 인해 마지막 파트너로 남은 두사람. 이 자리에서 성학씨는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고 은근슬쩍 고백해 버리고 만다. 이로서 자연스럽게 프로포즈를 한 셈이다.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막상 남자의 고백을 들으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선경씨는 그때의 당당한 기백에 호감이 갔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또 글을 좋아하는 사람은 꿈이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좋았구요.”

대학시절 문예창작을 전공한 성학씨는 소설을 공부하는 것 외에도 광고쪽으로 관심이 많아 광고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틈만 나면 유명한 광고회사가 주최하는 광고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여러번, 끝내는 큰상은 아니지만 입상 정도는 해서 지하철 문화의 공간 벽에 전시된 적도 있다고 한다.

현재 서울 교육문화 회관 예식부 지배인으로 일하는 그는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관계로 그의 휴일은 평일이다. “어찌 보면 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잘 된 일입니다. 평일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독서하고 소설도 구상하고, 집필도 하고, 이 시간이 저에게는 작은 행복입니다.” 휴일을 같이 못 지내서 아내에게 항상 미안하다는 성학씨, 하지만 이런 시간이 그에게는 아주 소중하단다.

코헬지에도 단편소설을 연재한 적이 있는 그는 아직도 문학에 많은 미련이 남아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소설가의 꿈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꼭 등단을 해서 아름다운 글들을 많이 남기고 싶어요. 저는 그 꿈의 날개에 지금 하나씩 하나씩 깃털을 심고 있거든요”

이 시대의 소시민 진성학씨, 직장인으로서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부모님을 모시는 효심 많은 아들로서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하다. 하지만 그에게 남다른 삶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그것은 곧 ‘삶에 있어 진정한 여유로움이란 먹고, 마시며, 놀고 하는 것이 아닌, 보다 나은 자기 발전을 위해 개척하며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마운 나무

전주 완산초등학교 3학년 조현태

겨우내 상상했던 나무야
 어느덧 새봄을 맞아
 푸르른 옷을 갈아입고
 활짝 웃고 있구나
 햇살이 뜨거운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주고
 맑은 공기를 주는 나무야
 나의 마음도 너를 닮아
 항상 푸르고 싶구나



미운 시계 새끼

서울 이강욱

우 리 집은 밤만되면 시계들의 사교장으로 변한다. 커다란 추가 천천히 좌우로 왕복운동을 하며 움직이는 벽시계, 아침마다 우리 집 식구들을 시끄러운 소리로 깨우는 탁상시계, 금장으로 도금된 줄이 달린 투박해 보이는 아버지의 손목시계, 검정 가죽끈을 달고 있는 작고 예쁜 어머니의 손목시계, 세련된 팔각모양을 가지고 있는 형의 손목시계, 이들은 낮에는 벽시계와 탁상시계를 빼고는 모두 흩어졌다가 밤이 되면 다시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독특한 목소리로 재잘된다.

‘똑딱똑딱, 째각째각, 철컹철컹, 똑딱째각철컹, 똑딱째각철컹’

아버지는 내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선물로 손목시계를 사 주셨다. 그것은 온통 새까맣고 다른 시계들과는 다르게 작고 예쁜 바늘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몇개의 숫자가 그려져 있고 그 숫자가 소리 없이 바뀌는 것이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나의 시계를 갖게된 나는 너무 기뻐했다. 그날 밤 방안에 모인 모든 시계들은 새로운, 이상하게 생긴 친구에게 인사를 했다. 먼저 제일

큰 벽시계가 말한다.

‘똑딱, 너는 이상하게 생겼구나. 네 이름이 뭐니? 똑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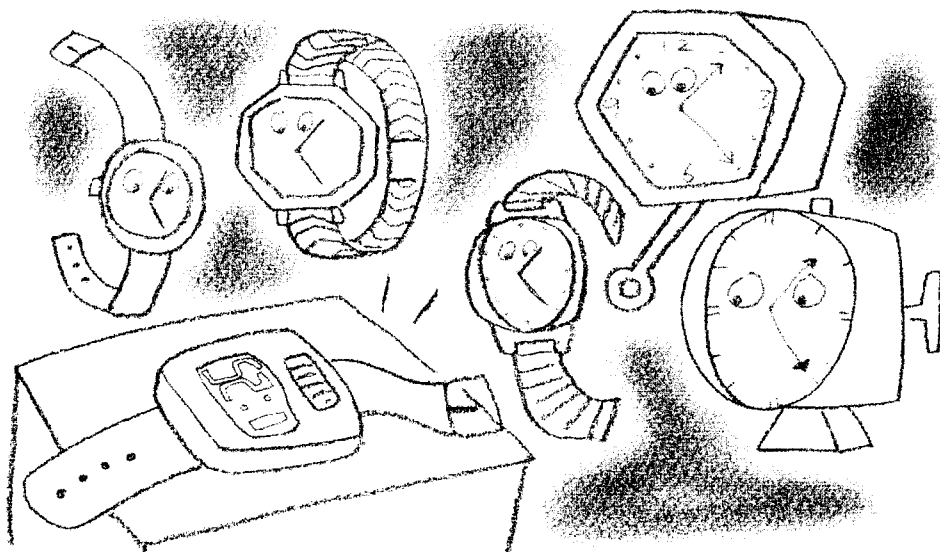
하지만 전자시계는 말이 없다. 뒤이어 탁상시계가 걸쭉한 목소리로 아는 체를 한다.

‘철컹, 너는 말도 못하는구나. 아마 네가 소리를 못내는 건 바늘이 없기 때문일거야, 네 주인에게 바늘을 달아 달라고 하렴. 그러면 너도 목소리를 가질 수 있을 테니까 철컹’

탁상시계의 충고를 알아 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전자시계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이 숫자만 바뀌어가고 있다. 계속해서 손목시계들의 수다스런 소리들이 들린다.

‘째각, 병어리라니 참 안됐구나 째각’

‘째각, 거기다가 생기기도 이상하게 생겼으니 너무 불쌍해. 아마 채는 주인에게도 사랑을 못 받을 꺼야. 어찌면 조금 있다가 버림을 받을지도 몰라. 째각’



이런 소리들을 듣고 있던 전자시계는 너무 슬펐지만 소리를 내어 울 수도 없는 자신이 더욱 밍게 느껴지는 것이다.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게다가 목소리도 주지 않고... 어찌면

나는 실수로 만들어 졌을지도 몰라. 아니면 혹시 내가 시계가 아니라 다른 물건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주위를 둘러 보아도 이 새까만 전자시계와 비슷하게 생긴 물건은 없었다.

날이 밝았다. 아침이 되자 간밤에 시계들끼리 오가는 소리를 들은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나도 바늘 달린 시계로 사주세요!”

“왜, 그 시계가 마음에 안 드니?”

“이건 병어린걸, 아무 소리도 못내는 시계는 싫어요!”

“음... 생각해 보자꾸나”

아버지는 그러시고는 조용히 나가셨다. 그날 나는 그 새까만 병어린 시계를 가져가지 않고 학교로 갔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나에게 내밀었다. 그곳에는 짹짹 소리 내며 가고 있는 손목시계가 들어있었다. 이제 나에게도 정말 시계다운 시계가 생긴 것이다.

그날 밤도 방안에 모인 시계들은 새로운 시계와 인사를 건넨다.

‘똑딱, 만나서 반가워. 너는 우리들과 똑같이 생겼구나. 똑딱’

‘철컹, 너는 주인이 누구니? 이 집 사람들 중에는 너의 주인은 없을 텐데... 철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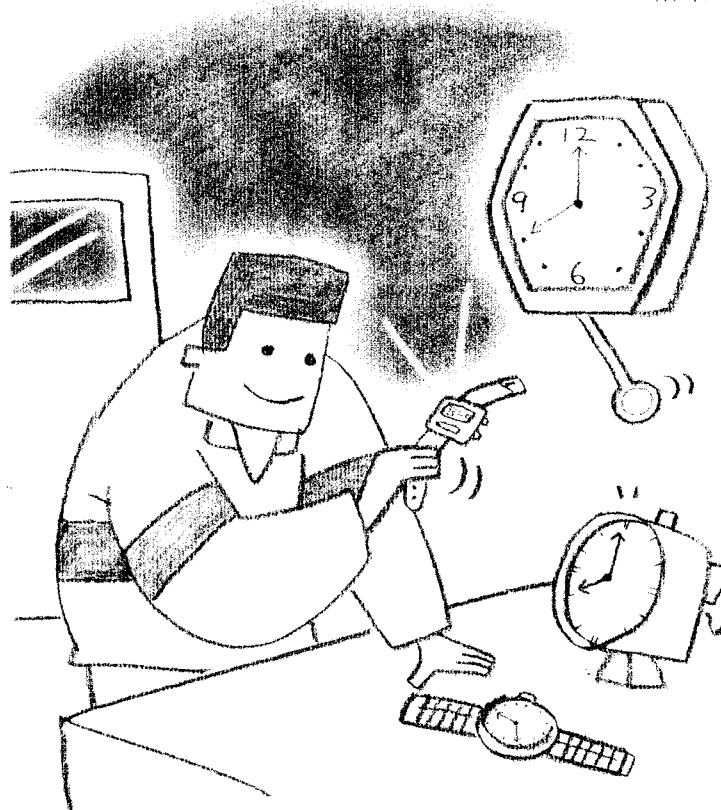
손목시계중 하나가 구석에서 말없이 있는 전자시계를 보며 말한다.

‘째깍, 아마 재의 주인이 새 주인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뒤편, 재는 얼마 안 가서 주인에게 버림받을 거라고 했잖아! 저렇게 이상하게 생긴데다 거기다가 말까지 못하니 버림받을만 하지. 참 안됐군. 짹’

구석에서 오가는 얘기들을 들은 전자시계는 너무나 슬프고 비통했다.

자신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기뻐하던 주인이 겨우 하루도 안 지나서 자기를 버리고 새 시계를 데리고 온 것이 너무 야속했다. 이렇게 슬픈 마음을 커다란 소리로 울기라도 해서 풀어 버리고 싶었지만 소리는 전혀 나오질 않았다.



그때였다. 속으로만 울고 있던 전자시계는 뭔가 목격한 것이 속에서 넘어오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러자 지금까지 닫혀있던 자신의 입에서 커다란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뽀이 뽀이 뽀 뽀뽀뽀뽀뽀...’

그 소리는 너무 커서 다른 시계들의 초침 소리를 모두 누르며 퍼져나갔다. 힘차게 힘차게...

이튿날 아침 나는 시계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갔다. 어제 아버지께서 사다주신 시계를 집어 들다가 구석에서 소리 없이 늘어져 있는 전자시계를 보았다.

그는 슬프고 지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건 바로 새까맣고 못 생긴 시계야! 목소리도 남들과는 다르니까 더욱 좋다!’

나는 들고 있던 시계를 탁자 위에 내려 놓고는 전자시계를 집어 들었다.

대 구 소 식

대구, 경북지회에서는 신년 1월 18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경북대 병원 소아과 외래 검사실에서 '99년도 정기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의 검사와 아울러 A형 간염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였습니다. 총 96명의 회원들

이 검사를 받았으며 최근 A형 간염 집단 발병으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며 좀더 안전한 치료제의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주 소 식

지난 1월 19일 전주, 전북지회 청심회(전화:0652-231-8297) 회원들의 정기 혈액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총 45명이 이번 검진에 참석하였습니다.

소아과 김완섭 과장님과 원무과 및 사회사업과 선생님 등 병원 관계자 여러분의 유기적 협조로 인해 순조롭게 검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김완섭 과장님과 참석한 회원들과의 일문일답 시간을 통해 유아 및 어린이

회원의 감기예방교육과 취학아동의 건강체크 방법 등 유익한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점차 늘어나는 신입회원들과 기존회원들을 위해 매주 주사일지 작성법과 약품 관리법 및 소독, 청결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지회사무실에 비치된 근육운동 방법을 담은 시청각교육비디오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부 산 소 식

꽃향기의 싱그러움이 우리의 코끝을 스치는 계절입니다. 부산, 경남지회에서는 돌아오는 어린이날에 맞추어 어린이 사생대회 개최와 더불어 회원 가족들과의 화합을 위해 친목 야유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울타리회의 행사가 회원들과 가족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

원 속에 뜻 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회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드리오니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한울타리회 : (051)557-2621

광 주 소 식

광주 전남지회에서는 지난 98년 9월 12일 새 임원진을 구성하여 조직을 개편하였고 그 이후로 꾸준히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2회(화요일과 목요일) 전대병원에 자원봉사자가 상주하여 회원들의 진료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진들이 순천, 목포지역을 방문하여 여러 회원들의 궁금중에 대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1월 12일에는 전회원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였

는바 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면역체, 간염(A, B, C), AIDS, 응고인자 항체검사를 하여 각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3월부터 만 15세 이상 회원은 전대병원 혈액종양내과(주치의 : 정익주 교수님)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임원진은 회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표 지 설 명

본 그림은 코렘회원 신형호(9세)군의 그림으로 즐거웠던 가족 나들이 모습을 아름다운 색상의 조화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봄기운은 메말랐던 나뭇가지에 어느새 푸르름을 더해가고 봄새 소리와 어우러져 우리의 마음을 싱그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의 다사다난함을 떨쳐 버리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따스한 햇살과 함께 가족들의 나들이는 어떨런지요.

소 식 란

'99년 어린이날 행사 작품을 공모합니다. 어린이 여러분의 재능 있는 작품을 기대합니다.

- ◆ 참가대상 : 5~12세
(어린이 회원 및 가족과 회원 자녀)
- ◆ 응모부문 : 그림, 문예
(소재는 자유)
- ◆ 시상내역 : 최우수상, 우수상,佳作, 장려상, 참가상
- ◆ 문의사항 : 한국코렘회 사무국
☎ (02) 929-9802

혈우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전국의 혈우병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해 주는 한국혈우재단보가 제간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려와 무겁고 뚜껑이었던 겨울 옷을 벗어 버리게 만듭니다. 모든 생물들이 기지개를 켜고 활기차게 활동하는 때입니다. 봄의 따스함을 전하며 제 31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소식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저희 편집부의 작은 정성이 코렘가족 여러분에게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코렘"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 소중한 글을 보내주신 코렘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1.내 용 : 시, 수필, 투병수기, 체험담, 콩트 등의 문예물과 기타 알릴만한 내용과 혈우병치료에 관한 궁금한 사항
- 2.모집기간 : 별도의 모집기간없이 수시모집
- 3.보내실곳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6-59 한국혈우재단
- 4.상 품 : 참가자와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사랑이란 이름의 새

광주장 성진

내안에 언제 부터인가
귀엽고 작은 새가
소리없이 둥지를 틀었다
밤새 내 귀에 소곤거리며
털새없이 재잘거렸다

곧 이 새는 나에게
슬플 때 위로를 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내 생명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 작은 새는 무엇을 먹고
사는지 잘 모른다
어느 때 보면 자라지 않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때 보면 세록 세록 자라있는 것을
보기도 한다

어느 날 이 새는
매우 슬피 울었다
내 사랑이 떠나감을 보고,
마치 자기 생명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처럼...